

## 미국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에 따른 보건·의료 부문 영향

홍보배 연구원

### 요약

미국 바이든 정부는 그린산업 투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을 제정함. 동 법안을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및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처방의약품 가격 규제 도입, 건강보험료 보조금 정책 연장 및 메디케어 가입자 부담금 상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임

- 2022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의 그린산업 투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수의 산업·보건·의료 정책을 담은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에 최종 서명함
  - 동 법안은 총 8개 편(Title), 16개 장(Subtitle)으로 구성되며, 미국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제조·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의료 소비자의 비용 감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등을 포함함
    - 연방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세수 확대 방안도 마련되었는데, 10억 달러 이상 수입을 창출하는 기업에 15% 세율을 부과하는 최소 법인세 제도 신설 및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 특별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이 이에 속함
-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의료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방의약품 가격 규제 도입, 건강보험료 보조금 정책 연장, 메디케어 가입자 부담금 상한 설정 등과 같은 조치를 마련함<sup>1)</sup>
  - 미국 보건의료재정관리기구인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이하, ‘CMS’)는 2026년부터 메디케어가 보장하는 10개 의약품에 대해 최대적정가격(Maximum Fair Prices; MFPs)을 협상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CMS는 2023년 초부터 약가 협상의 대상이 되는 10개의 고비용 의약품을 선정하고 협상에 돌입하며, 2029년까지 이러한 협상 대상 의약품 수는 20개로 확대될 예정임
    - 의약품업체가 법안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95%의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도 함께 포함됨
  - 2022년 10월부터는 의약품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을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서 의약품업체는 CMS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야 함
  - 또한 미국 구제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따른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의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원 정책이 2022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함
  - 그리고 2025년부터는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기로 함

1)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2. 9. 1), “Selected Health Provision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 바이든 정부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에도, 의료 소비자의 비용을 낮추고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가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22년 10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처방의약품 약가 비용을 낮추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하였음<sup>2)</sup>
    - 미국 보건복지부 내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통해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처방의약품 약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의료서비스 지급·전달 체계(Payment and delivery models)를 마련하도록 요청함
  - 또한 재무부(Treasury Department)는 고용주 지원 건강보험에서 발생하던 가족 결함(Family glitch)<sup>3)</sup> 문제를 해결하고 더 많은 가구가 건강보험료 보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며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임<sup>4)</sup>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표 1〉 참조)
  - 특히 전례 없는 처방의약품 약가 규제를 통해 약 2,880억 달러의 세수 증가가 전망되며, 리베이트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의약품 약가 인상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임
    - 미국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7월~2022년 7월 사이 미국 인플레이션은 8.5%를 기록한 데 반해, 1,216개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가 인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31.6%에 달했음<sup>5)</sup>
  - 또한 적정부담보험법(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원 정책 연장, 오바마케어 개정을 통한 가족 결함 문제 해결 등으로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
    - 미국 백악관은 가족 결함 문제 해결을 위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약 20만 명이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고, 100만 명 이상이 건강보험 비용 부담 감소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sup>6)</sup>

〈표 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을 통한 연방 재정적자 축소 전망 안

구분	축소 전망
세수 확대(Total Revenue Raised)	7,390억 달러
15% 최저 법인세율 도입	3,130억 달러
처방의약품 약가 규제	2,880억 달러
IRS(Internal Revenue Service) 집행력 강화	1,240억 달러
이자 Loophole 개선	140억 달러
투자 지출 (Total Investments)	4,330억 달러
에너지 보안 및 기후변화 대응	3,690억 달러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640억 달러
재정 적자 축소 (Total Deficit Reduction)	3,000 + $\alpha$ 달러

자료: Speaker of the House(2022. 9), “Summary: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2) The White House(2022. 10. 14), “Executive Order on Lowering Prescription Drug Costs for Americans”  
 3)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는 개인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약 10%를 넘으면 건강보험료 보조금 수혜 자격이 주어지나,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 대부분은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어왔음  
 4) Healthinsurance(2022. 10. 11), “IRS regulations fix the ACA’s ‘family glitch’ as of 2023”  
 5) Fierce Healthcare(2022. 9. 30), “HHS: More than 1,200 drugs’ prices rose past inflation in 2021”  
 6) The White House(2022. 4. 6), “FACT SHEET: Biden Harris Administration Proposes Rule to Fix “Family Glitch” and Lower Health Care Costs”